

YOUN Jiyoung



이 작품은 '타투'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 타투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캔버스이자,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타투'는 '문'과 '문'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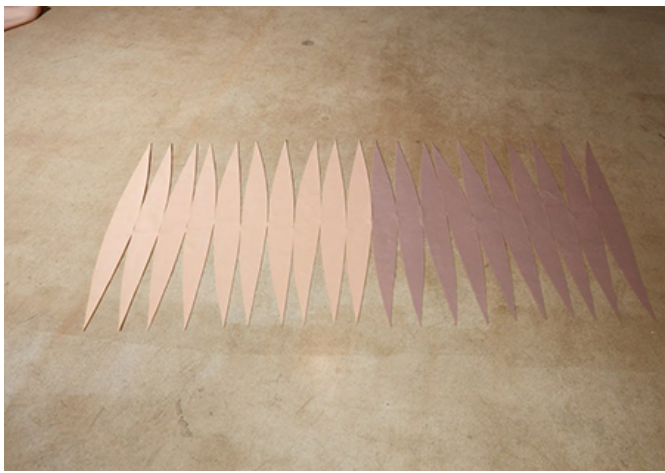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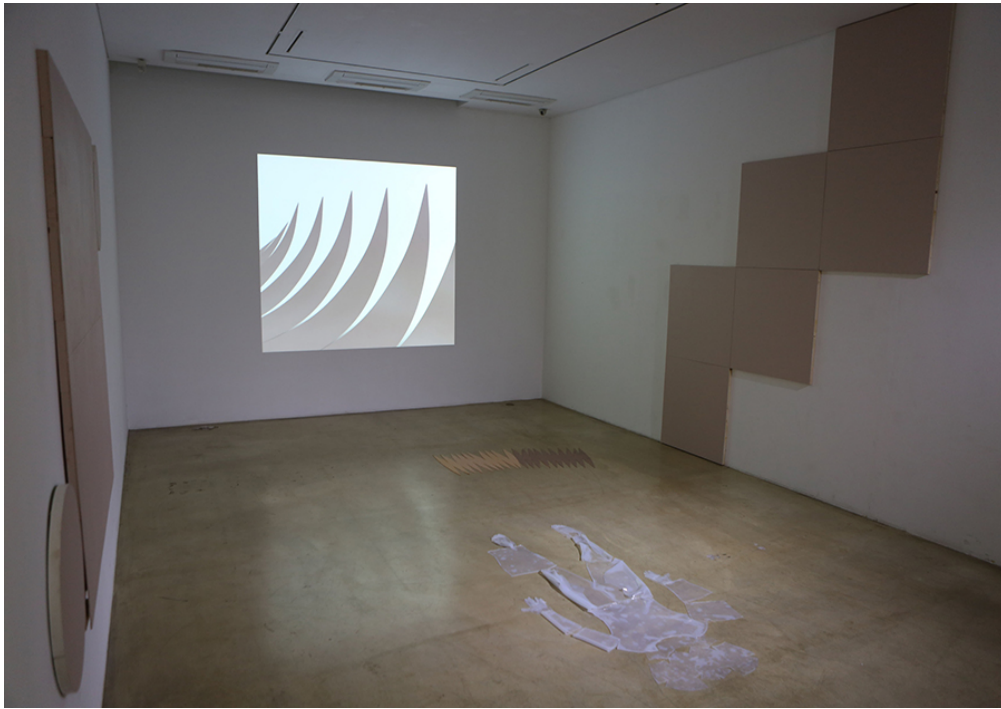


타투, 170x221x166cm, 230x60x60cm (3pcs), 타투, tattoists: BAKA, Ida, Sunjae, 2019 (타투, 타투)

Q&A

Q.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A. 이 작품은 '타투'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 타투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캔버스이자,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타투'는 '문'과 '문'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작품은 '구(No Planar Figure of Sphere) 조각' (이탈리아, 2018)

Q. 이 작품에서 구(구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표현의 의의는 무엇인가?

A. 이 작품은 '구(구체)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구는 3차원 공간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 중 하나이며,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곡률을 가진다. 그러나 구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작품은 구의 곡률을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도하며, 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이 작품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00 00 0000. 0 000 000 0000 0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0 0
 0 0000 00 00 00 000 '00 00' 0 00 '00 00'0 0000 00. 00, 0 000 0
 00 000 000 00000, 00 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000, 0 00 0
 00 00 00 000 0000 00 00 0000 000 00 000000 000 00.



0000 (Blowfish-like), 20 340. 000 00, 2013

Q. 000 00, 00, 00000 000

A. 00 00 '00 0000 000 0'0 0000, '00 00 00 00 00 00000, 0000 00
 0 0000'0 00 00000. 000 0 000 00000, 0000 000 0000.



무관심 (Regardless), 40 33cm, 30cm 100cm 100cm, 2018

Q. 이 작품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A. 이 작품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제목은 '무엇을 무관심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무관심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작품은 무관심을 초래하는 원인을 보여주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무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영준(Seeing things the Way We See the Moon), 2014, 45cm, 캔버스, 2013-2014

Q. 이영준의 작품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A.



출처 : jiyoungyun.com